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3, 2015. 8, pp. 5-2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신 혜 정[+]
(이화여자대학교)
노 충 래[++]
(이화여자대학교)
허 성 희
(이화여자대학교)
김 정 화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요 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을 개인, 가족, 사회적 지지 요인에 따라 메타분석하여 사회복지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37편의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요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였다. 둘째, 각 요인들은 모두 '중간 효과'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의 우선 순위는 결혼만족, 사회적 지지 순으로 '큰 효과' 크기를 보였고, 다음으로 생활만족도, 가족 관계·기능,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 순으로 '큰 효과'에 가까운 관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 분석 결과, 개인요인에서는 한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 우울, 자아존중감이,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요인에서는 결혼만족,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요인이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효과크기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제시되었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스트레스, 메타분석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한국 내 국제결혼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맞물려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이 2000년을 기점으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 26,274건에 이르렀다. 특히 농·어촌, 도시 저소득층 남성들과 동남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국내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간 국제결혼 건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22,265건에서 2012년 20,637건, 2013년 18,307건에 머물렀다. 한편 2013년 국내 총 결혼 건수는 322,800건이었으며 이중 국제결혼은 26,000건으로 전체의 8.0%였고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전체 결혼 건수의 5.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3% 감소하였지만, 2000년의 6,945건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아진 것이다(통계청, 2013).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수는 2006년에는 93,78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196,789명(124,584명·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72,205명·국적을 취득한 여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행정자치부, 2012).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는 불균형적인 성비 균형으로 인해 결혼에서 소외된 남성들에게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어촌의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생산노동 및 가족부양 측면에서 새로운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설동훈·윤홍식, 2005; 권명희, 2011).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 적응과정에서 모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혼돈, 행동 및 인지와 태도의 변화, 언어습득 등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라는 특유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한다(Rogler et al., 1991; Liebkind, 1996; Oh et al., 2002). 더욱이 국제이주를 전제로 한 결혼은 결혼이주여성이 사전 탐색이나 관찰, 적응기간이 없이 만남과 동시에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권명희, 2011). 일례로 국내로 유입되는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중국(33.1%), 베트남(31.5%), 필리핀(9.2%), 일본(6.6%) 등의 순으로(통계청, 2013) 조선족을 제외한 상당수가 언어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언어문제 외에도 가족체계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관계적 문제, 문화적·역사적 문제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얽혀 문화적응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정명희, 2010), 국제이주와 결혼을 동시에 선택한 특수한 상황에서 주류사회인 한국사회로의 적응과정과 다문화가정에서의 문화적응이라는 이중과제를 떠안게 된다(양옥경 외, 2009).

한편,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1)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권복순, 2009; 박용순 외, 2012), 자아탄력성(김현숙 외, 2010b), 우울(양옥경 외, 2009; 김민정,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지은진 외, 2012; 김현실, 2012; 김성남, 2012; Xu and Chi, 2013;

Driscoll and Torres, 2013), 건강상태(정애화 외, 2011), 심리적 안녕감(김민정, 2011; 권명희, 2011; 이숙경, 2012; Baker et al., 2012), 삶의 질(박선태, 2012; 이숙경, 2012), 정신건강(임혁, 2010; 지은진 외, 2012; Shen and Takeuchi, 2001; Takeuchi et al., 2007; Rhee, 2009), 연령(이진숙, 2010; 정애화 외, 2011; 오광실·정혜정, 2012), 한국거주기간(나임순, 2008; 이진숙, 2010; 정애화 외, 2011), 학력(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안준희·조정희,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소득수준(정명희, 2010; 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오광실·정혜정, 2012; 현경자·김연수, 2012; 이영실 외, 2012), 한국어 능력(나임순, 2008; 권복순, 2009; 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박용순 외, 2012; 오광실·정혜정, 2012)을, 2) 가족요인으로는 가정폭력(김민정, 2011), 부부적응(홍미기, 2009; 김현숙 외, 2010b), 부부갈등(김오남, 2006; 이영실 외, 2012; 오광실·정혜정, 2012), 결혼만족도(박용순 외, 2012), 부모역할(이영남, 2011), 가족건강성(김경화·최정혜, 2011; 김혜신, 2011; 박연희, 2012)을, 3)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김민정, 2011; 정애화 외,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Xu and Chi, 2013), 사회통합(김경옥, 2010; 권구영, 2012)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이나 조절요인, 매개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효과크기를 비교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이경순과 영연란(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에서 메타분석을 이용한 효과크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이은주와 전미경(2013)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변인의 메타분석에서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 중 하나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효과크기를 다루고 있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모든 변인들에 대한 효과크기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반면, 효과성을 강조하는 증거기반 사회복지실천이 점차 확산되는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 변인에 관해 메타분석을 이용하여 개별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표준화하여 효과크기를 파악하는 일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을 고려함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의 역동적 관계에서 어떤 변인들에 보다 더 집중하여 개입할 수 있는지의 실증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메타분석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 간의 효과크기들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결혼이주여성의 하위집단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박사논문 및 학술지논문들을 메타분석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의 임상적·정책적 개입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서로 다른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접촉관계에 들어가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성원들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Berry, 1976). Redfield와 Herkovits(1936)는 문화적응을 인간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다른 문화에 노출되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문화적응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변화들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신체적,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인 유형이다. 첫째 신체변화는 생소한 장소, 생소한 주택, 다른 인구밀도, 그리고 새로운 기후와 접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생물학적 변화는 낯선 음식, 영양 상태와 질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변화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재분류 등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넷째 문화적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언어적, 기술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변화는 태도, 가치, 신념, 그리고 정신건강상태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Berry, 1990).

이러한 문화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역기능을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하는데 이는 문화적응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거나 그 과정에 근원을 두고 있는 스트레스로서 문화적응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사회·경제·문화적인 스트레스원에 기인한 결과이다(Berry and Annis, 1974; Berry, 1990).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응의 개념 안에서 난민들이나 이주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Lazarus와 Folkman(1984)이 발전시킨 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 내적, 외적인 요구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을 확장시킨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를 말한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것이 축적되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긴장이 바로 문화적응스트레스이다(Hovey and Magana, 2002).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이민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적응과정 외에 한국남편과의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이루어진 이주의 특성 상 한국의 가족생활 및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이 자란 자민족 고유의 가족문화와 결혼을 통해 형성된 이질적인 가족문화와의 차이에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이진숙, 201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유입한 모국사회의 가족문화의 영향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수용, 거부하는 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양옥경 외, 2009). 이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편견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다양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정신건

강상의 문제를 갖게 될 위험이 높아지며, 이는 자녀양육문제와 가족불화의 원인이 되어 결국에는 가정해체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정명희, 2010; 권명희, 2011).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이 문화적 충격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된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효과적인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

(1) 개인요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인구학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등을 포함한다. 문화적응과정은 개인에게 새로운 삶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자원과 건강한 개인의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권명희, 2011).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정체성 혼란과 부적절한 대처기술, 부족한 자원 등으로 심리적 고통에 처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에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우울, 초조감, 식욕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Hovey, 2000).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 중 인구학적인 특성으로 연령(이진숙, 2010; 정애화 외, 2011; 오광실·정혜정, 2012), 한국거주기간(나임순, 2008; 이진숙, 2010; 정애화 외, 2011), 학력(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안준희·조정희,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소득수준(이진숙, 2010; 정명희, 2010; 권명희, 2011; 오광실·정혜정, 2012; 현경자·김연수, 2012; 이영실 외, 2012), 한국어 능력(나임순, 2008; 권복순, 2009; 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박용순 외, 2012; 오광실·정혜정, 2012)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권복순, 2009; 박용순 외, 2012), 자아탄력성(김현숙 외, 2010b), 우울(양옥경 외, 2009; 김민정,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지은진 외, 2012; 김현실, 2012; 김성남, 2012; Xu and Chi, 2013; Driscoll and Torres, 2013), 건강상태(정애화 외, 2011), 심리적 안녕감(김민정, 2011; 권명희, 2011; 이숙경, 2012; Baker et al., 2012), 삶의 질(박선태, 2012; 이숙경, 2012), 정신건강(임혁, 2010; 지은진 외, 2012; Shen and Takeuchi, 2001; Takeuchi et al., 2007; Rhee, 2009)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이진숙, 2010; 정애화 외, 2011; 오광실·정혜정, 2012), 소득수준이 낮을수록(정명희, 2010; 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오광실·정혜정, 2012; 현경자·김연수, 2012; 이영실 외, 2012), 학력이 낮을수록(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안준희·조정희,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나임순, 2008; 이진숙, 2010; 정애화 외, 2011), 한국어능력(나임순, 2008; 권복순, 2009; 이진숙, 2010; 권명희, 2011; 박용순 외, 2012; 오광실·정혜정, 2012)이 부족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 중에서 우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특히 결

혼이주여성은 이주로 인한 문화적인 전환과 더불어 결혼에 의해 새로운 가족과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부적응상태를 경험하게 된다(안준희·조정희, 2011).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낮은 정신건강상태는 불안이나 우울, 무망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느낌, 소외감,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동시에 보고되기도 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양옥경 외, 2009; 안준희·조정희,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지은진 외, 2012; 김현실, 2012).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임혁, 2010)에서는 정신건강을 신체화 증상, 불안 및 불면증, 사회생활 부적응, 심한 우울증 등 4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신건강문제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창기(2012)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차별대우, 편견 등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아지며(권복순, 2009)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게 보고되었다(정애화 외, 2011).

(2) 가족요인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 및 모국의 가족 구조·문화적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구성원들의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수용정도에 따라 독특한 가족문화와 가족 구조적 특징을 형성한다(양옥경 외, 2009).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은 결혼 후 한국의 전통적인 부계확대가족형태의 가부장적인 가족구조에 부딪히는데 특히 양계중심사회에서 성장하여 부부의 동등한 의무와 권한에 익숙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시부모의 관여, 일방적인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가족 돌봄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김이선 외, 2006; 박경동, 2008).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생활의 가치로 부부중심의 애정적 태도를 중요시 하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언어장벽, 남편과의 연령차이, 역할기대의 불일치 등이 친밀한 부부 및 가족관계 형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한건수, 2006; 박경동, 2008; 안준희·조정희, 2011).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대체로 짧은 맞선을 통해 결혼에 이르기 때문에 한국인 남편은 이주여성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표현해 주지 못하고 가치관이나 생활습관의 차이 등에 대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부부갈등, 가정폭력,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한다(박경동, 2008; 안준희·조정희, 2011).

선행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가족 요인으로 가정폭력(김민정, 2011), 부부적응(홍미기, 2009; 김현숙 외, 2010b), 부부갈등(김오남, 2006; 이영실 외, 2012; 오광실·정혜정, 2012), 결혼만족도(박용순 외, 2012), 부모역할(이영남, 2011), 가족건강성(최정혜, 2011; 김혜신, 2011; 박연희, 2012)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김오남, 2006; 이영실 외, 2012; 오광실·정혜정, 2012)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결혼이주여성과 남편과의 문화적 태도와 환경의 차이는 삶에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며 이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가족건강성에도

위험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김혜신, 2011; 최정혜, 2011; 박연희, 2012; Burman and Margolin, 1992). 또한 결혼이주여성 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긴장이나 불안 등은 가중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부갈등은 별거, 이혼의 결과를 가져오며(김오남, 2006) 가족의 해체를 가속시키며, 나아가 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호 갈등관계로 발전하게 된다(김오남, 2006; 이영남, 2011; 이지영, 2012).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고 싶지만 언어장벽과 경제적 어려움, 교육환경의 정보부족 등으로 부모역할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며 갈등을 겪게 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역할 효능감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 자신감을 준다(이영남,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며(김현숙 외, 2010b),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용순 외, 2012). 나아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오광실·정혜정, 2012), 가정폭력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김민정, 2011).

(3) 사회적 지지 요인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질감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 내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및 내·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이은주·전미경, 2013).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에게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처 관련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포함하여 개인의 안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ena et al., 1987; Liebkind and Jasinskaja-Lahti, 2000; Uchino, 2004) 지속적이며 상호적인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Thoits, 1995).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 요인이 결혼 이주여성의 우울, 부부적응, 부부갈등,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 생활만족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11; 정애화 외, 2011; 현경자·김연수, 2012; Xu and Chi, 2013).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은 문화적응상의 어려움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배우자, 시부모, 친구 등)와 공식적인 지지체계(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등)의 긍정적인 도움은 이들이 겪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현경자·김연수, 2012).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 때 안정되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지지는 부부적응과 결혼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혼이주여성은 가족 중에서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경자·김연수, 2012; 이은주·전미경, 2013).

현경자와 김연수(2012)는 남편과 시댁의 지지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했으며, 정애화 외(2011)는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일수록 사회적 지지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김민정(2011)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심

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을 메타분석하여 종합적인 효과크기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개인요인에는 인구학적 요인(연령, 한국거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등을 포함시켰으며, 가족특성 요인으로는 결혼만족, 부부관계, 가족관계·기능, 자녀와의 관계 등의 변인을, 그리고 사회적 지지 요인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효과크기들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후, 분석대상이 되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통합하거나 비교가 가능한 공통의 단위인 효과크기(effect size)들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대상 연구물의 선정기준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들을 파악하고자 200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을 학술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ISS), NDSL(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DBPIA,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물의 출판기간을 2000년 이후로 정한 이유는 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이 199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2000년까지는 주로 현황이나 실태에 관한 보고들이었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포함하는 분석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한 연구들로 한정하였다. 다만, 자료수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 주제어는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다문화부부,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문화적응스트레스, 스트레스, 적응'등과 같이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해당 연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서지자료들은 Excel로 변환하여 통합·정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초 검색된 논문의 수는 총 288개였는데, 논문들을 선정 혹은 배제한 절차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288개 논문들을 1차적으로 논문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들 간 중복 검색된 논문 164편, 결혼이주여성 자녀 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 37편, 개입효과 논문이거나 질적

연구 및 경향연구 논문 33편을 제외하였다. 나아가 1차 선정된 논문 54편에 대해 본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효과크기를 산출할 수 있는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또한 동일 저자가 동일 데이터로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논문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연구들 간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 개의 논문을 선택하였다. 반면, 남인숙·안숙희(2011)의 논문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독립된 두 개의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으로 판단되어 두 편으로 계산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수들 중 희망, 외로움, 이중문화정체성, 모국문화인지도, 사회적 자본, 사회통합, 사회활동참여 변수는 2개 이하의 연구물에서 발견되어 메타분석의 유용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변수들만 포함된 연구는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 연구물의 수는 37편이었다.

2) 데이터 코딩방법

최종 선정된 37개의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들과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Excel 프로그램에서 코딩표를 구성하여 정리한 후 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 통계프로그램에 재입력하였다. 코딩표는 연구특성,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통계치로 구성되었다. 연구특성에는 ID, 제1저자, 연구년도, 출판유형, 표본수를 코딩하였고, 결혼이주여성특성으로 조사 지역,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과 한국거주 기간 등을 코딩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은 분석대상 연구물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들을 모두 코딩한 이후 연구자들이 논의하여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각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해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를 산출해낼 수 있는 상관계수 r값, t값, 유의도 p값을 입력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들의 코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한 후 불일치한 부분을 확인한 후, 기입 오류는 바로 재코딩하였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4인의 연구자가 함께 상의하여 수정하였다. 2인의 연구자 간 코딩의 일치율은 약 92%였다.

3) 분석방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은 크게 출판편의 검증, 효과크기 계산, 이질성 검증과 메타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Comprehensive Meta Analysis 2.0 메타분석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1) 효과크기의 계산 및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물을 분석하기 때문에, 먼저 상관계수 r값을 표준화시킨 Fisher's Z값으로 변환하였다. 다음으로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교정된 Cohen의 효과크기(d)인 Hedges'g값으로 〈그림 1〉과 같이 최종 전환하였다(Hedges and Olkin, 1985).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

종 선정된 37편의 논문에서 총 120개의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련 요인에 대한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

$$Cohen'd = \frac{2r}{\sqrt{(1-r^2)}},\ Hedges'g = d(1-\frac{3}{4df-9})$$

〈그림 1〉 r값에 대한 효과크기 변환공식, 효과크기 d를 효과크기 g로의 변환공식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은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연구들 간 이질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효과크기(true effect size)가 연구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무선효과 모형을 채택하여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를 병합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모집단의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각 연구의 표본 수와 연구간 변량인 τ^2(tau-squared)의 값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효과크기를 〈그림 2〉와 같이 계산하였다. 단, 효과크기의 수(k)가 10개 이하일 때에는 적은 표본에서도 효과크기 평균 효과크기의 추정이 안정적인 고정효과모형의 통계치를 동시에 확인하였다.

$$M^* = \frac{\sum_{i=1}^{k} W_i^* Y_i}{\sum_{i=1}^{k} W_i^*},\ W_i = \frac{1}{V_{Y_i}^*},\ V_{Y_i}^* = V_{Y_i} + T^2$$

〈그림 2〉 가중평균 효과크기 변환 공식

효과크기에 대한 해석은 Z검증을 통해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확률을 계산하였고,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신뢰구간에 값이 0이 포함될 경우 그 효과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Borenstein et al., 2009). 또한, 효과크기에 대한 Cohen(1988)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d값이 .2는 작은 효과, .5는 중간 효과, .8은 큰 효과를 의미한다. Hedges'g값은 d값보다 약간 작게 추정되나, 20개의 이상의 연구를 포함하면 g값이 d값에 근접하기 때문에 Cohen(1988)의 해석기준에 준하여 해석하였다.

(2) 출판편의 검증방법

분석대상 연구자료가 출판된 연구물의 결과만을 종합하여 발생하는 출판편의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Rosenthal(1979)의 안전계수(Fail-safe N)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유의한 메타분석의 결과를 유의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몇 편의 연구물이 더 필요한지 계산하는 방법이다(Borenstein et al., 2009). 안전계수가 '5N(메타분석 대상 논문수)+10'이상이면 대체로 안전하다고 판단한다(오성삼, 2002). 이 방법 외에 Forest plot, Funnel plot,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 방법 등을 통해 분석대상 연구물에 포함되는 각 연구의 표본 크기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였다.

(3) 이질성 검증방법

이질성 검증은 자유도를 고려한 Q통계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Q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모든 효과크기들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기각된 것이며, 연구의 효과크기에서 관찰된 총 분산 중 오차분산의 비율이 표집오차에 의한 것으로 기대되는 것보다 유의하게 큼을 의미한다(Borenstein et al., 2009).

(4) 메타회귀분석

메타회귀분석은 1개 이상의 연속형 조절변수(moderator)가 효과크기에 미치는 잠정적인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된다(정인숙 외 역, 2011). 회귀분석과 유사하게 해석되며 메타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효과크기이고, 독립변수는 조절변수들이며 분석의 단위는 연구가 된다(정인숙 외 역, 2011).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여 산출한 평균 효과크기가 이질성을 보이는 성과 변수에 대해서 이질성의 원인을 찾고자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연구논문은 총 37편으로,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논문 중 2007년도 이전의 논문은 없었으며 2007-2009년 6편, 2010-2013년 31편으로 2010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논문이 많았다. 출판유형은 박사학위 논문이 4편이었고, 학회지 논문이 33편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본 수는 100이상-199이하가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이상-299이하 10편, 300이상은 8편 이었다.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조사지역은 도시 9편, 농촌 3편, 혼합이 25편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1.8세였고, 평균 한국 거주기간은 5.1년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 비율이 평균 69.07%였고,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평균 16.02%였다.

〈표 1〉 분석대상 연구물의 특성(N=37)

		빈도	백분율
연구년도	2007-2009	6	16.2
	2010-2013	31	83.8
출판 유형	학회지	33	89.2
	박사학위논문	4	10.8
표본 수	100-199	19	51.3
	200-299	10	27.1
	300≤	8	21.6
지역	도시	9	24.3
	농촌	3	8.1
	혼합	25	67.6
		평균	표준편차
평균 연령		31.8	3.6
평균 한국거주기간(년)		5.1	2.4
학력[1]		69.07	10.85
저소득 비율(%)[2]		16.02	6.01

[1]고졸이하 비율
[2]월수입 100만원 이하 비율

2)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 요인 간의 효과크기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들에서 추출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은 크게 개인, 가족,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유형화된다. 먼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은 한국어능력과 경제적 어려움이었다($p<.001$). 한국어능력은 9개 효과크기들의 가중평균이 -.413으로 부적관계를 보였고, 경제적 어려움은 7개 효과크기들의 가중평균이 .397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Cohen(1988)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효과크기가 .5이면 중간효과 크기를 가지므로 두 변인 모두'중간 효과'정도 크기의 관계성을 가진다. 한편, 연령, 한국거주기간, 학력 변인들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유의한 효과크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 편의 검증을 위해 Funnel plot을 검토한 결과, 각 변인들 모두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들이 표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거의 좌우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보였으며,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 방법으로 확인하여도 효과크기의 변화가 없었다. 또한, Rosenthal(1979)의 안전계수 검증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인 한국어능력과 경제적 어려움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는데 각각 163개, 103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판별기준인 '5N(효과크기의 수)+10'보다 커서 출판편의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질성검증 결과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 모두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개별 효과크기들이 서로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특성 중 우울과는 정적으로,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생활만족도와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효과크기의 값은 생활만족도(g=-.785), 자아존중감(g=-.778), 심리적 안녕감(g=-.757), 우울(g=.710)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변인들 모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큰 효과'에 가까운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판 편의 검증을 위해 Rosenthal(1979)의 안전계수를 확인한 결과, 우울은 1128, 자아존중감은 443, 생활만족도는 65, 심리적 안녕감은 73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동질성 검증 결과에서는 생활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 변인은 각 3개의 개별연구들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이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과 자존감 변인은 Q통계량이 유의하여 개별 연구들 간의 효과크기가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 요인 간의 효과크기

	효과크기 수(k)	효과크기 (g)	95% 신뢰구간(CI)		df	동질성 검증
			하한	상한		Q통계량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11	.092	-.077	.261	10	36.242***
한국 거주기간	11	-.039	-.264	.185	10	68.032***
학력	10	-.137	-.034	.029	9	34.197***
한국어능력	9	-.413***	-.538	-.288	8	18.051*
경제적 어려움	7	.397***	.201	.593	6	21.614**
심리적 특성						
우울	15	.710***	.443	.978	14	190.337***
자아존중감	8	-.778***	-1.068	-.489	7	64.792***
생활만족도	3	-.785***	-.950	-.619	2	1.812
심리적 안녕감	3	-.757***	-.983	-.532	2	4.571

*p<.05, **p<.01, ***p<.001

3)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요인 간의 효과크기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요인 간의 메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족 요인에 포함되는 결혼만족, 부부관계, 가족관계·기능, 자녀와의 관계 변인들 모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크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결혼만족(g=-.850)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가족관계·기능(g=-.778), 부부관계(g=-.593), 자녀와의 관계(g=-.399)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은 7개의 개별연구들을 통합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큰 효과'크기의 관계성이 있었고, 가족관계·기능도 '큰 효과' 크기에 가까운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변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중간 효과'정도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요인 간의 관계를 보고한 17개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한 효과크기

는 g=-.8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크기가 있어,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Cohen(1988)의 해석 기준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 요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큰 효과'에 근접한 관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및 사회적 지지 요인의 효과크기들에 대한 출판 편의 검증을 한 결과, Rosenthal(1979)의 안전계수가 결혼만족 301, 부부관계 154, 가족관계 583, 자녀와의 관계 37, 사회적 지지 2269로 나타나 출판 편의상의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자녀와의 관계 변인은 안전계수의 판별기준인 '5N(효과크기의 수)+10'에 가깝게 나타나,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 방법으로 출판편의가 전혀 없을 때를 가정하여 효과크기를 재조정했을 때 g=-.407로 원래 값인 g=-.399와 유사하였다. 각 효과크기별로 개별 연구들 간의 이질성 여부를 Q통계량으로 검토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 변인을 제외한 결혼만족, 부부관계, 가족관계·기능, 사회적 지지 요인 모두 효과크기를 산출해낸 개별 연구들이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사회적 지지 요인 간의 효과크기

가족・사회적 지지 요인	효과크기 수(k)	효과크기 (g)	95% 신뢰구간(CI)		df	이질성검증
			하한	상한		Q
가족생활 요인						
결혼만족	7	-.850***	-1.074	-.626	6	18.779**
부부관계[1)]	6	-.593***	-.839	-.346	5	22.418***
가족관계・기능[2)]	9	-.778***	-.933	-.623	8	20.672**
자녀와의관계[3)]	4	-.399***	-.524	-.274	3	.830
사회적 지지 요인	17	-.848***	-1.062	-.634	16	193.839***

*p<.05, **p<.01, ***p<.001
1)부부갈등, 부부관계, 부부의사소통, 부부적응 변인을 포함
2)가족건강성, 가족관계, 가족관계스트레스, 가족기능, 가족/주부생활스트레스 변인을 포함
3)양육효능감, 자녀양육, 자녀와의 관계 변인을 포함

4) 조절효과 분석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한 효과크기를 보인 변인을 효과크기의 정도에 따라 나열하면 결혼만족,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가족관계·기능,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 부부관계, 한국어능력,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다. 이 변인들 중 개별연구들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개인요인의 한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 우울, 자아존중감과 가족·사회적 지지 요인의 결혼만족, 부부관계, 가족관계·기능, 사회적 지지 변인에 대하여 조절변수를 통하여 이질성의 원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절변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농촌 거주여부, 평균 연령, 학력(고졸이하 비율), 평균 한국거주기간, 저소득비율(월수입 100만원 이하 비율)이었다. 농

촌 거주여부 조절변수는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석대상 연구물이 3편으로 적어, 농촌거주 여부로 메타회귀분석이 가능한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조절변수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 요인 간의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국어 능력의 효과크기에는 평균 연령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어 능력 간의 상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에는 평균연령과 저소득 비율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연령과 저소득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컸다. 셋째, 우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는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저소득비율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비율이 낮을수록, 저소득 비율이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커졌다.

〈표 4〉 개인 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 영향요인

	한국어능력 (k=9)		경제적 어려움 (k=7)		우울 (k=15)		자아존중감 (k=8)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농촌거주 여부[1)]	-	-	-	-	.260***	.072	-	-
평균 연령	.025*	.013	.014*	.001	-.047***	.009	.143***	.022
거주기간	-.009	.025	.012	.001	-.030*	.011	-.005	.024
학력[2)]	-.019	.215	.429	.225	.119	.180	-1.293***	.283
저소득비율[3)]	-.313	.546	2.810***	.791	-2.108***	.622	-1.150**	.354

*p<.05, **p<.01, ***p<.001
1)농촌=1, 그 외 지역=0, 2)고졸 이하 비율, 3)월 수입 100만원 이하 비율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족·사회적 지지 요인 간의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결혼만족의 효과크기 영향요인으로 저소득비율이 유의하여, 저소득비율이 낮을수록 결혼만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컸다. 둘째, 부부관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는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저소득비율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기능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없었다. 사회적 지지의 효과크기 영향요인으로는 농촌거주 여부, 평균 연령, 학력, 거주기간, 저소득 비율이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이 농촌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평균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비율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저소득비율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가 유의하게 컸다.

〈표 5〉 가족·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요인 간의 효과크기 영향요인

	결혼만족 (k=7)		부부관계 (k=6)		가족관계·기능 (k=9)		사회적 지지 (k=17)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농촌거주 여부[1)]	-.058	.067	-	-	-	-	-.386***	.060
평균 연령	-.017	.013	-.03***	.01	.007	.008	.019***	.004
거주기간	-.059	.036	-.072**	.02	.023	.013	.017**	.005
학력[2)]	.120	.319	-.19	.20	.312	.177	-.781***	.159
저소득비율[3)]	-1.04*	.492	-1.76***	.391	.198	.418	-.973**	.275

*p<.05, **p<.01, ***p<.001
1)농촌=1, 그 외 지역=0, 2)고졸 이하 비율, 3)월 수입 100만원 이하 비율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2000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가운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37편의 연구물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할 개입의 영역과 대상의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로 연령, 한국 거주기간, 학력, 한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 우울,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결혼만족, 부부관계, 가족관계·기능,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변인이 최종 추출되었다. 이들 중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 요인의 한국어능력,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상관의 효과크기를 보였고, 경제적 어려움 및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가족요인의 경우 결혼만족, 부부관계, 가족관계·기능, 자녀와의 관계 변인 모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적으로 유의한 평균 효과크기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 요인의 사회적 지지 변인도 유의한 평균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메타분석에 의해 개별연구들을 통합한 결과를 Cohen(1998)이 제시한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준하여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큰 효과'크기의 관계성을 가지는 변인은 결혼만족,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 가족관계·기능,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 변인 순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큰 효과'에 가까운 관계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부부관계, 한국어능력, 자녀관계, 경제적 어려움 순으로 '중간 효과'정도 크기의 관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별연구들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의 이질성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인

구사회학적 특성(농촌 거주여부, 평균 연령, 학력, 평균 한국거주기간, 저소득비율)을 조절변수로 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지역이 타 지역일 때보다 농촌일 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연관이 높고, 사회적 지지 간의 연관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이 도시보다 지역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식적 사회적 지지체계에 접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이 타 지역보다 높고 사회적 지지 요인의 완화효과도 적음을 의미한다. 연령에 따라서는 평균 연령이 높을 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어능력, 경제적 어려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간의 연관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부부관계와 우울 변인은 분석대상 논문들의 결혼이주여성 평균 연령이 낮을 때 그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외에도 부부관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연령이 낮을 때는 부부관계 및 우울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주기간은 평균 연령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관계, 우울 간의 연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인 비율이 낮을수록, 즉 학력이 높은 결혼이주여성이 많이 포함된 연구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변인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비율에 따른 분석 결과는 경제적 어려움 변인을 제외하고 우울, 자아존중감, 결혼만족, 부부관계, 사회적 지지 변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연관성은 저소득비율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이 높고 저소득이 아닌 집단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지지와의 연관성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평균 학력과 평균 월소득을 보고한 분석대상 논문 수가 적어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인 비율과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비율을 기준으로 학력과 소득에 대해 탐색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후 보다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연구의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개인, 가족, 사회적 지지 등의 다차원적 요인들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모두 '중간 효과' 이상의 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단일 차원적 요인보다는 다차원적 요인 간에 연계성을 가지고 다각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실증적 데이터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인, 가족, 사회적 지지 등의 다차원적 요인간의 연계성을 가진 개입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통한 사례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 효과크기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크기가 가장 큰 변인 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영향력이 가장 큰 관련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결혼만족, 사회적 지지 변인 순으로 가장 큰 가중평균 효과크기를 보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개입을 함에 있어 개입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결혼생활 관련 부부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결혼이주여성이 배우자의 지지를 받는다고 자각할 때 결혼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김현숙 외, 2010a; 김현숙 외, 2011, 이은주·전미경, 2013) 배우자의 이해 및 협력을 통한 결혼만족도 향상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결혼이주여성 당사자 및 부부교육 중심의 현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배우자인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한 지지자원으로서 남편의 역할 및 부부관계 증진 방법 등을 모색하는 배우자 교육 프로그램 및 배우자 자조모임 등이 양적, 질적으로 더 확대 지원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역사회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확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족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발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이 메타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시부모, 원가족), 의미 있는 타자(친척, 친구, 이웃)등의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받는 지지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사회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전문가와 같은 공식적 지지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인지할 때 안정되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현경자·김연수, 2012; 이은주·전미경, 2013) 결혼이주여성이 보다 나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시부모 등으로 세분화화여 가족관계가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배우자교육, 부부 교육, 부모-자녀교육, 시부모-부부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 간, 의미 있는 타자 간에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식적인 차원의 지지체계에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만족도 및 사회적 지지요인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개인요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 즉,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 순으로 비교적 '큰 효과'에 가까운 효과크기를 보여 이들에 대한 접근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양옥경·김연수, 2007; 임혁, 2010)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부적응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예방 및 완화 전략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증진 접근이 중요하며 이때 무엇보다 문화적 민감성이 바탕이 되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인식개선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협의의 지역사회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적 적응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농촌거주 여부, 평균 연령, 거주기간, 학력, 저소득비율에 따라 개인, 가족 및 사회적 지지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개입전략을 차별화 및 개별화할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지역적 인프라 및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과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균연령이 낮고 거주기간이 짧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갈등을 해결하며 한국문화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족치료, 가족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또 고졸이상의 학력과 저소득이 아닌 결혼이주여성 집단의 경우에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개인의 정신건강증진, 가족관계 향상과 사회적 지지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효과크기에서 평균 연령과 저소득비율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경제적 어려움의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나 빈곤 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결혼이주여성 가정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개개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제공과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 결과들을 토대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들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고 효과크기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최종 분석된 연구물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연구 효과크기 수가 2개 이하인 몇몇 변인들이 최종분석에서 제외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통합적 결과를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관련 변인들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개입방안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본 연구에서 메타분석에 사용한 논문임

권구영, 201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 사회통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5: 104-140.

*권구영・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187-219.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275-302.
*김경옥,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화・최정혜,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중등교육연구』, 23: 29-49.
*김민정, 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3): 1-28.
김성남, 2012, "한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 예측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오남, 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기타간행물, 1-335.
*김정아, 2010,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 『세명논총』, 16(1): 187-200.
*김창기,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집』, 47: 395-402.
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0a,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 질의 관계", 『가족과 문화』, 22(3): 97-127.
*김현숙・김희재・최송식, 2010b,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53-176.
김현숙・김희재・오중환, 2011,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의 질의 결정요인: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27-51.
*김현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김혜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성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6.
*남인숙・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노소영・김은영, 2012, "농촌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4(4): 370-379.
박경동, 2008, "다문화가족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한국의 광주, 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포럼』, 18:140-174.
박선태, 2012, "결혼이주여성의 역할 부담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Double ABCX 모델의 적용",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소은・이채원, 2012,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7(9): 359-384.

박연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요인연구 : 가족관계스트레스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용순・송진영・이순자,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6(2): 88-110.

*박은희・조인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2): 29-54.

*박지영・이창식,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디지털정책연구』, 10(11): 665-672.

설동훈・윤홍식, 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46-265.

*안준희・조정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137-176.

양옥경・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양옥경・송민경・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오광실・정혜정, 2012,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153-171.

오성삼, 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이경순・영연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 17(3): 697-709.

*이솔잎・김유식・심상신, 2013, “여가스포츠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7(4): 57-72.

*이숙경,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예측모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남, 2011,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역할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영실・조명희・홍성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4): 171-194.

이은주・전미경,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31(5): 125-141.

*이지영,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2): 105-125.

이진숙,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6): 919-932.

*이혜경・전혜인, 2013,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4): 413-432.

*임수진・오수성・한규식,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요인: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15-528.

*임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4: 189-221.

*임현승, 2010, “The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marriage - Bas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examination of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한국가족복지학』, 15(2): 27-45.

정명희, 2010, "한국사회 문회적응 스트레스 대응방안: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7(3) :55-84.

*정애화・김혜진・정현자, 2011, "국제결혼한 필리핀 이주여성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5509-5517.

정인숙・전성숙・황선경・김동희・하주영 역, 2011,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Littell, J. H., Corcoran, J., and Pillai, V., 2008,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파주: 수문사.

*조인주, 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1(5): 889-900.

*지은진・최지명・김교헌・권선중・박은진・이민규, 201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7(1): 243-252.

*최정혜, 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6(4): 29-46.

*최형성,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중국, 필리핀,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7): 1-13.

통계청, 2013, "다문화인구동태통계", http://kostat.go.kr/.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한아름・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75-104.

*함진옥・조인주, 2012, "전북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및 심리적·사회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3):65-97.

행정자치부, 2012, "외국인 주민현황", http://www.mogaha.go.kr/.

*현경자・김연수,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지지의 직접 및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7(4): 653-677.

*홍미기, 2009,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ker, A. M., Soto, J. A., Perez, C. R., and Lee, E. A., 2012, "Acculturative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n Asian American sample",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3(4): 275-285.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ion*, New York: Sage/Halsted.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 Newbury Park, CA : Sage.

Berry, J. W., and Annis, R. C., 1974, "Acculturative str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2-406.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and Rothstein, H. R., 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John Wiley & Sons, Ltd.

Burman, B., and Margolin, G., 1992, "A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relationships and health problems: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Psychological Bulletin*, 112(1): 39-63.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s.)*, New Jersey: Lawrense Erlbaum.

Driscoll, M. W., and Torres, L., 2013, "Acculturative stress and Latino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resourc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4): 373-382.

Duval, S., and Tweedie, R., 2000,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 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 analysis", *Biometrics*, 56(2): 455-463.

Oh, Y., Koeske, G. F., and Sales, E., 2002, "Acculturation,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4): 511-526.

Hedges, L. V., and Olkin, I., 1985, *Statistical Methods for Meta-Analysis*, Orlando FL: Academic press.

Hovey, J. D., 2000, "Psychosocial predictors of depress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Psychological Reports*, 86: 1237-1240.

Hovey, J. D., and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Verlag

Liebkind. K., 1996, "Acculturation and stress: Vietnamese refugees in Finlan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2): 161-180.

Liebkind, K., and Jasinskaja-Lahti, I., 2000,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immigrant adolescents in Finland: A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 groun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4): 446-469.

Mena, E., Padilla, A. M., and Maldonado, M., 1987, "Acculturative stress and specific coping strategies among immigrants and later generation college stud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9: 207-225.

Redfield, L., and Herkovits, O.,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 149-152.

Rhee, S., 2009, "The impact of immigration and acculturation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Overview of epidemiology and clinical implications", 81-98, in *Handbook of Mental Health and Acculturation in Asian American Families: Current Clinical Psychiatry*, edited by Trinh, N. H., Rho, Y. C., Lu, F. G., and Sanders, K. M., New York: Humana Press.

Rogler, L. H., Cortes, R. S., and Malgadi, R. G., 1991,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American Psychologist*, 46: 585-597.

Rosenthal, R., 1979, "The file drawer problem and tolerance for null results", *Psychological Bulletin*, 86(3): 638.

Shen, B. J., and Takeuchi, D. T., 2001, "A structural model of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nese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387-418.

Takeuchi, D. T., Zane, N., Hong, S., Chae, D. H., Gong, F., Gee, G. C., and Alegría, M., 2007, "Immigration-related factors and mental disorders among Asian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 84-90.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What nex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5: 53-79.

Uchino. B. N., 2004, *Social Support and Physical Health: Understanding the Health Consequences of Relationships*, CT: Yale University Press.

Xu, L., and Chi, I., 2013,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roles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interaction",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3): 217-226.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for Marriage-based Migrant Women

Shin, Hyejung
(Ewha Womans University)
Nho, Choongrai
(Ewha Womans University)
Heo, Seonghui
(Ewha Womans University)
Kim, Jeonghwa
(Institute of Childr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Using meta-analysis, this study aims to examine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in relation to acculturative stress by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 and polic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uthors selected 37 studies between 2000 and 2013.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cculturative stress of marriage-based migrant wome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verage effect size in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support variables. Second, each variable showed at least'medium'and above size. Further,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showed'large effect size'and life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 and functions,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showed 'near large effect size.'Third, when moderating effect was examine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economic difficulty, depression, and self-esteem among individual variables showed differences in effect size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Meanwhile, marital satisfaction and couple relationship among familial variables and social support among social variables showed differences in effect size according to socio-economic variables. Based on these results, authors suggested ways to prevent or reduce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age-based migrant women in Korea.

Key words: marriage-based 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meta-analysis

〔논문 접수일 : 15. 02. 25, 심사일 : 15. 03. 16, 게재 확정일 : 15. 05. 21〕